

“멸종 위기 ‘목포 왕자귀나무’ 연구·기록 남겨야”

황호림 박사, 왕자귀나무 연구성과 책으로 펴내

전남·목포만의 희귀 유전자원...개체 수·분포 특성 등 기록 동아시아로 연구 영역 넓혀...자원화 방안·보전대책 등 제시

왕자귀나무는 목포와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이다. 이 나무는 목포와 전남에만 자생하며 미래 멸종위기 가능성이 높은 희귀식물이지만 왕자귀나무를 연구하는 사람 또한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왕자귀나무 전문가로 알려진 동북아난대숲문화원 황호림(60·임학 박사) 원장이 이 나무와 만난 것은 2005년이다.

목포에서 이 나무 밀집도가 가장 높은 유달산과 부흥산을 전수 조사해 개체 수를 확인하고 분포 특성과 동태를 파악해 기초 데이터를 만들었다.

황 박사는 그동안의 왕자귀나무 연구 성과와 연구 과정의 에피소드를 묶어 ‘왕자귀나무’라는 책을 펴냈다. 누군가는 남겨야 할 기록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이룬 값진 성과다.

라온제나(2010년), 우리동네 숲 돋보기(2014년), 숲을 듣다(2019년)에 이어 그의 네 번째 숲 이야기 시리즈다.

왕자귀나무는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1919년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가 목포 유달산에서 발견한 왕자귀나무를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세계에 알려졌다.

국외로는 인도, 미얀마, 베트남,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지만 우리나라는 목포를 중심으로 신안, 무안, 해남, 영암, 나주, 진도 등 전남 7개 시군에만 국지적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황 박사는 우연히 왕자귀나무를 처음 만난 후 목포 일대에서만 자라는 멸종 위기식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일종의 사명감으로 왕자귀나무를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한다.

전남대학교 대학원 임학과에 진학해 목포지역 왕자귀나무 연구로 임학 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동아시아로 왕자귀나무 연구영역을 확장해 최근 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제1장 왕자귀나무의 이해, 제2장 왕자귀나무와의 에피소드, 제3장 자원으로서 왕자귀나무, 제4장 왕자귀나무의 보전 등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황



박사는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처럼 오지않아 넓은 나무, 못난 막냇동생처럼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는 짝한 나무가 바로 왕자귀나무라고 말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취재본부장 moon@

호남통계청, 설 성수품 무안 복지시설에 전달



호남지방통계청장(최창 이호식·왼쪽 두번째)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목포 전통시장인 동부시장을 찾아 성수품 물기동향을 파악하고 이곳에서 구입한 물품을 무안 선영노인요양원에 전했다. <호남통계청 제공>

광주지방변호사회, 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진용태)는 최근 소외자매원과 희망의 집, 화순장애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 사회복지법인 경애원 등 광주·전남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뉴스콘텐츠 활용성 높인다”...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서비스 개선

코로나19 등 사회현안 분석 정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가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개편, 새롭게 선보인다.

먼저 코로나19 팩트체크 아카이브와 언론사별 뉴스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팩트체크 아카이브는 SNU 팩트체크,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등의 팩트체크 정보와 뉴스를 연계해 이용자에게 코로나19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메인 화면의 언론사별 뉴스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역소식을

쉽게 접할 수도 있다.

모바일 이용환경도 개선했다. 이슈별, 언론사별, 관심뉴스 등 다양한 뉴스 보기를 지원하고, 맞춤 키워드 설정으로 나만의 뉴스 이용과 메일링서비스도 제공한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사회현안에 대한 분석 정보도 제공해 뉴스콘텐츠의 활용성을 높였다.

빅카인즈(www.bigkinds.or.kr)는 1990년 이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 7000만 건을 축적한 뉴스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서비스다. 뉴스보기와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복싱 스타 장정구 씬터 조성



장정구 씬터는 500㎡짜리 자투리땅을 산복도로 고치 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장 전 선수 스토리와 연계해 주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연합뉴스

한국복싱계 살아있는 스타인 장정구(58·전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전 선수 별명을 딴 씬터가 부산에 조성됐다.

부산 서구청은 장 전 선수 고 향인 서구 아미동에 2억원을 들여 그의 별명을 딴 ‘장구 씬터’를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인사

- ◆광주문화재단
 - ◇승진 ▲일반 1급 박강배 청렴감사실장 ▲일반 2급 광규호 예술상장본부장 ▲일반 3급 선미영 창작지원팀장
 - ◇전보 ▲경영혁신본부장 김지원 ▲문화융합본부장 김영순 ▲문화공간본부장 김홍석 ▲기획전략팀장 정혜영 ▲대외협력팀장 강현미 ▲경영지원팀장 이창호 ▲문화예술교육팀장 이종수 ▲문화사업팀장 오훈 ▲장의도시팀장 정진경 ▲지역콘텐츠팀장 박경동 ▲시설운영관리팀장 정영주 ▲빛고을시민문화팀장 윤정하 ▲전통문화팀장 박희순 ▲예술인보듬·소통센터 팀장 유은형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55 나의 살던 고향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양코리 카이로스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습득	00 임행이사·조선비밀수사단		00 푸리가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박원숙의 같이 삼시사(3재)	00 12 MBC 뉴스 20 와와와 롤링프렌즈 50 뽀빠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나의 살던 고향은 55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제안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한국인의 밥상(재)			00 뉴스브리핑
3	05 또 하나의 국가대표, 영광의 뒷이야기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의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불타는 청춘(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비밀의 남자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설 기획 노래가 좋아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임행이사·조선비밀수사단	20 사진 정리 서비스 폰클렌징	00 제41회 청룡영화상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50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PD수첩 55 100분토론	
12	10 허만 소의 해 신축년 맞이 KBS결작 다큐멘터리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40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티시테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펍	12:25 지식채널e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꼬마하어로 슈퍼팩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8:30 두다다쿵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실크 로드 따라 -사막에서 길을 묻다. 이란>
09:00 뽀뽀뽀 뽀로로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인생은 아름다워 2부 낙원에 사시나요?>
09:15 핫도그만 만들어봐요	16:15 올리 앤 문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30 명탐정 피트	16:30 당동당 유치원(재)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와 해와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9일(음 12월 28일 戊子)	☎ 010-9790-8237
<p>36년생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48년생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기회가 와도 취할 수 없다. 60년생 재준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72년생 파격적인 방도로 전환해 보는 것도 괜찮다. 84년생 앞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96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43, 61</p> <p>37년생 불가피한 상황이 감내해야만 하느니라. 49년생 효가 늘어나면서 득도 되지만 어수선해진다. 61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73년생 노력한다면 자신이 열원해 왔던 바를 얻게 된다. 85년생 사세가 변화무쌍으로 종횡무진 하니 탄력적으로 대처하라. 97년생 피하거나 보류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2, 54</p> <p>38년생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다. 50년생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인다. 62년생 상대에게 이익을 줘야 성립하느니라. 74년생 초석이 될 만한 계기를 마련하는 운로라 할 수 있겠다. 86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98년생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8, 55</p> <p>39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51년생 손에 잡힐듯 하면서도 연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다. 63년생 뜻밖의 황제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75년생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다. 87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9년생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98</p> <p>40년생 이미 이론 셈이다. 52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바가 행운과 연결 되는 형국이다. 64년생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 아니라. 76년생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않으면 맹점을 안게 되리라. 88년생 말을 잘 한다면 행운을 부르겠지만 혀는 몸을 베는 칼이 되기도 한다. 00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58, 99</p> <p>41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53년생 물라서가 아니라 여진이 갖춰지지 않아서이니라. 65년생 결정적인 신호는 느낌으로써 올 것이다. 77년생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영향력이 행사 되고 있도다. 89년생 없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다. 01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어 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6, 60</p> <p>42년생 흥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54년생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심을 알라. 66년생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로다. 78년생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발견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리라. 90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증폭되는 양태라는 것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 77</p> <p>43년생 숨은 재주로 인한 이익이 따르리라. 55년생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뜻한 바를 이루리라. 67년생 재물이 사방에 보이나 모두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라. 79년생 쉽게 잠달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91년생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 번 뒤돌아다보라. 03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진행하는 과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4, 89</p> <p>32년생 훨씬 앞당겨져서 처리 되는 세계이다. 44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지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8년생 내색하지 않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80년생 폭넓은 시야라야 참신함을 도모할 수 있다. 92년생 취약한 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6, 70</p> <p>33년생 진행되어 왔던 일에 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45년생 정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능률적이다. 57년생 목은 것을 털어 버리고 신선함을 시도하라. 69년생 자기 발전으로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81년생 적절한 상황이 전개 되면서 안정 궤도를 달린다. 93년생 속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53</p> <p>34년생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게 될 것이니라. 46년생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버리겠다. 58년생 검은 구름이 걷히고 있으니 곧 해가 떠오르리라. 70년생 주변의 충고를 수용한다면 해결점을 찾는다. 82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 낸다. 94년생 계획대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5, 61</p> <p>35년생 상대가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 주어야만 효과적이다. 47년생 전혀 인지하지 못 하였던 것에 대해서 변수가 있다. 59년생 추구해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71년생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도다. 83년생 사방이 은통 오리무중이니 미혹에 빠질까 두렵다. 95년생 소홀히 해왔던 점이 없는 지 살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3, 64</p>	